창립정신 봉사로 회향한 스님들

화엄승가회 창립 4주년… 자비나눔 행사 펼쳐

"꽃이 피어 봄이 아니라 화엄승가회에 봉사하는 모든 불사가 참된 봄꽃이며 향기입니다."

승가나눔공동체 화엄승가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자비나눔으로 창립을 기념하고 앞으로 더욱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3월 22일 부산 서면 터존뷔페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화엄승가회는 대학생포교를 위해 부산대, 동아대, 해양대 등 5개 대학 불교 동아리에 각 100만원, 무료급식소 효심밥상 100만원, 부산불교교육대학 모교발전기금 100만원, 장애인후원단체 1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전달했다.

기념법회에는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부회장 자관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효문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자인 스님은 "4년 동안 화엄승가회와 공덕탑을 쌓고 돌아보니 회원 스님들의 깊은 관심이 큰 후원이 됐다"며 "이웃의 고통을 보듬어 주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보살심이 싹트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참된 봄이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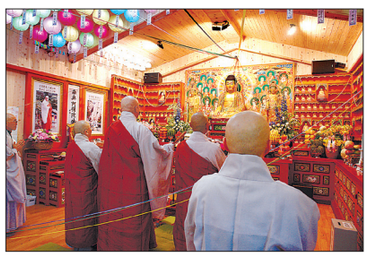
한편 화엄승가회는 2015년 3월 창립됐다. 창립 후 네팔지진피해 구호금 기부, 자살방지 및 교통안전 캠페인, 자비의 연탄 나눔, 무료급식소 및 대학생 포교 지원 등 자비나눔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려노후 책임질 부처님 도량"

영천 포산승가원, 3월 24일 봉불 점안법회

스님들의 노후복지시설인 제주 약천사 부설 영천 포산승가원(원장 덕조)은 3월 24일 3층 법당에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지난해 8월 승가원을 개원하고 3층 법당에 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셨다. 승가원장 덕조 스님의 원력과 불보살님의 가피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포산승가원장 덕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면서 포산당 혜인 대종사님의 고행에 보답하고 싶고 가르침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가원장 덕조 스님은 2018년 8월 21일 개원 준공식과 개원법회가 봉행되기까지 불사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한 16명의 불자를 호명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포산승가원은 3층 건물로 1층 공양간 및 종무소, 2층 방사 11칸, 3층은 법당을 갖춘 복지시설이다. 세수 70세 이상의 기초생활대상자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하며, 제주 약천사 직할로 운영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시민활동가 격려한 호남불교계

자비의 쌀 2,000㎏ 나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3월 27일 광주 광덕사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명에게 자비의 쌀 2,000㎏을 전달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자비의 쌀 나누기는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를 밝히는 활동가들에게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대표 혜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예전 시민사회운동은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것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환경 변화가 중요하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처럼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바른 것을 나타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시민사회담체 활동가들이다. 이분들이 지금의 붓다"라며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뇨엔 "佛法은 국경 넘어 하나"

국내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 인재불사 후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수행하는 일본 신뇨엔(眞如苑)이 한국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장학금, 봉축 행사지원금, 불우이웃돕기 등 지속적인 보살행으로 한국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신뇨엔은 한·일 불교 간 새로운 교류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뇨엔은 장학금 전달로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 학교를 직접 방문, 학생들을 만났다.

재단법인 신뇨엔 한국(대표 기시다 가츠오·이하 신뇨엔)은 3월 22일 부산 동명대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앞서 아츠시 마츠나가 신뇨엔 총본부 국제부장과 다카하시 히로시 총본부 이사, 정경 국원은 동명대 학생들을 만나 신뇨엔 총본산 방문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지난 2월 14~17일 일본 열반절에 맞춰 15명의 동명대 학생들은 신뇨엔 총본산을 비롯해 도쿄 등 일본 주요도시를 방문했다. 여행 경비는 신뇨엔에서 후원했다.

학생들은 새로운 불교문화를 경험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색다른 일본 불교 모델을 경험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류지연(일본어학과) 학생은 "한국불교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며 "현대적 건물에 동시통역기 사용 등 앞서가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한 건물 구조와 배려가 세심했다"고 말했다.

이진솔(불교문화컨텐츠학과) 학생은 "개조인 이토 신죠의 흉상이 가는 곳마다 눈에 띄었다. 개조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음

한일불교 교류 견인차 역할

지속적인 보살행 펼쳐 눈길

장학금 총 3300만원 전달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기원"

전, 지관전 등 전각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신뇨엔은 호법선신(수호신)의 특징에 따라 전각이 특색 있게 꾸며져 있어 모습이 색달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방문 소감을 들으며 아츠시 마츠나가 국제부장은 "좋은 경험이 됐기를 바란다"며 "다른 문화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기반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전달식에서 아츠시 마츠나가 국제부장은 신뇨엔 개조 이토 신죠의 청년 인재 양성 원력을 설명하며 앞으로 한일 교류가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 한국은 3월 22일 부산 동명대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학생들을 만나 신뇨엔 총본산 방문 소감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아츠시 마츠나가 국제부장은 "개조님은 청년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 및 교류는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한다"며 "방금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 맑고 순순한 기운을 느꼈다. 교류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재가불자를 위한 신뇨엔의 활동이 인상적이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후원이다.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후원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신뇨엔은 이날 동명대에 이어 부산연제고 학생 11명을 신뇨엔 부산정사에 초청,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학생 11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2200만원이다.

신뇨엔 부산정사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다. 2014년 부산정사 건립 전 2012년부터 지역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등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뇨엔은 '진여원(眞如苑)'을 의미한다. 1936년 개조 이토 신죠(1906~1986)가 개창했으며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 정사를 불사하고 포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개조 이토 신죠는 일본 진언종 본산인 교토 제호사에서 수행했으며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지도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정사, 부산정사, 창원포교원, 제주포교원이 있다.

초기불전 전문가 양성 결실 맺다

선운사불학승가대, 졸업생 배출

새로 입학한 학인 스님은 4명

국내 유일의 초기불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운사 초기불전불학승가대학원(학장 환성)이 제7회 졸업식과 9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3월 23일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전문과정 5명, 연구과정 2명의 스님이 졸업했으며, 4명의 스님이 새로 입학하고 졸업생 중 5명의 스님은 연구과정에 입학해 계속 학업을 이어간다.



선운사 초기불전불학승가대학원은 3월 23일 졸업생을 배출하고, 신입 학인 스님 4명이 입학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장 환성 스님, 강주 재연 스님, 성륜 스님 등 대학원 교수사 스님들과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해인사 원로 무관 스님, 선운사 부주지 대선 스님, 총무 심학 스님, 임실 상이암 주지 동효 스님, 정읍 성불암 주지 상운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해 학인 스님들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하는 스님들은 연구논문을 요약해 발표했으며 참석한 대중들은 졸업한 스님들에게 각자 준비한 졸업선물을 증정했다. 졸업식에서는 법인 스님과 남전 스님 등이 조계종 교육원장상과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학장 환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년 중 사중스님들과 재가신도들께 사는 모습을 유일하게 드러내는 게 이 자리인데 때마다 의식에 부족한 점을 보여서 아쉽다"고 평한 뒤 "오늘 졸업하는 스님들은 법사로서 중생을 유익되게 담마를 널리 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격려사에서 "정체돼 가는 전통불교를 활성화하고, 기틀을 정립하는데 학인 스님들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초기불교 교학과 체계화된 수행체계를 연구하고, 부처님 원음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수행과 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의 초석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은 2년의 전문과정과 3년의 연구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도불교사상과 역사, 초기 경전 성립과 구성, 빠알리어 경율론, 위빠사나 수행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